

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순항중'

연말 태양광 등 415개소 설치
총 36억 투입...자부담 30%
주택 1곳 전기료 60만원 절약
올해 중도 포기 세대 재모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주택, 공공건물, 일반건물 등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또는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올해 곡성군의 사업량은 태양광 375개소, 태양열 39개소, 연료전지 1개소로 총 36억 원이 투입된다.

곡성군은 현재까지 태양광 227개소, 태양열 12개소, 총 239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완료해 전체 사업량의 58%를 달성했다. 70개소는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세대와 중도 포기 세대 등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신청자를 재모집해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이 예정대로 완료되면 태양광과 태양열을 통해 연간 약 633TOE의 화석 에너지 대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

정된다. 이는 소나무 13만7,928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뛰어나다.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경우 1개소당 연간 3,800kWh 정도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6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자부담을 30% 정도 덜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일반 주택지원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30%를 자부담해야 하는데, 융복합사업은 20%만 자부담하면 된다. 정부 보조

금 중 곡성군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주택 지원사업에 비해 약 10% 정도, 국가 지원 비율이 1.5% 정도 더 높기 때문이다. 태양광 3kw 설치를 기준으로 일반 주택지원 사업보다 50만 원 정도 낮은 100만 원의 자부담으로 가능하다.

융복합사업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주민 A씨는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이 있어도 자주 못 틀었는데,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니 부담이 줄어들어 올해 여름은 더운지도 모르고 보냈다"며 만족해했다.

곡성군은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는 물론 환경보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도 응모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광양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최근 치유식물을 직접 심어 안전 취약계층 500명에게 전달했다. /광양시 제공

안전 취약계층 우울감 해소 광양 여성단체, 치유식물 전달

광양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최근 옥룡면 초원농원에서 치유식물을 직접 심어 안전 취약계층 500명에게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인 '치유식물 행복 나눔소' 사업의 하나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겪는 안전 취약계층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화훼농가의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자원 재순환 시민운동의 하나로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화분을 기부받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지원대상자는 독거노인, 코로나19자가 격리자, 보건의료 종사자 등 안전 취약계층으로 스트레스 완화 및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식물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 어려움 극복에 함께했다.

김지연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와 보건의료 종사자, 자가격리자, 택배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순천정원여행 팸투어 성료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정원들을 연계해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드는 순천정원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정원여행 팸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박람회 조직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관광환경에 맞춰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이번 팸투어를 마련했다. 이번 팸투어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팀별 4인 이하로 19팀 56명이 참여했다.

코스는 순천만습지 선상투어, 국가정원 관람을 포함해 ▲도심지역에 조성된 다양한 유형의 정원을 관람할 수 있는 관광 ▲일본식정원·기독교정원·한옥정원 등 정원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관광 ▲낙안민속촌 등 도심 외곽에 조성된 중규모의 정원관광으로 구성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순천시가 순천정원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정원여행 팸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순천시 제공

웹툰 인재들의 창작·제작 구심점 탄생

김민준 작가, 스튜디오365 창업
공동저작물 파생수익 추가 배분

순천에 최근 순천글로벌웹툰센터 입주 작가인 김민준 작가가 웹툰 콘텐츠 전문 제작사 '스튜디오365'를 열어 웹툰작가가 창업한 웹툰스튜디오 1호점이 탄생했다.

웹툰스튜디오는 스토리작가, 작화가, 어시스트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스테프

로 채용해 웹툰을 제작하는 회사를 말한다. 우리나라 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내 웹툰 창작 및 제작 환경도 점점 분업화, 전문화가 강조되고 있다. 스토리, 콘티, 팬더치, 채색, 후보정, 편집에 이르는 과정을 한 명의 작가가 작업하는 것보다 각자의 질과 제작 속도 향상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순천시 시민로 UD거리에 문을 연 '스튜디오365'는 김민준 작가가 지역 창작

자들과의 상생을 목표로 지난 1년여간 준비해 온 프로젝트다. 특히 '스튜디오365'는 일반적인 웹툰스튜디오 운영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테프들에게 4대보험 가입 및 기본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공동 저작물에서 파생되는 수익을 추가로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김 작가는 "웹툰스튜디오처럼 전문 창작자들이 모여들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웹툰스튜디오가 개설되면 지역 대학에서 배출되는 웹툰 인재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산업생태계도 확대되므로, 웹툰스튜디오 1호점 '스튜디오365'의 탄생은 지역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 및 창업 의지를 북돋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웹툰스튜디오가 지역 콘텐츠산업 창작과 제작의 거점이자 UD거리를 축으로 한 웹툰특화거리 조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지리산 화엄사 '문화축제' 연다

'화엄, 길 위에 서다'
걷기대회·음악회 등
내달 1일부터 사흘간

지리산 화엄사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화엄문화축제 '화엄, 길 위에 서다'를 개최한다.

화엄사는 화엄문화축제를 대중들과 만남을 늘리기 위해 첫째 날 걷기대회, 둘째 날 과불제, 셋째 날 화엄음악회로 나눠 승가와 재가, 군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진정한 '화엄'의 아담법석을 펼쳐 보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화엄문화축제가 열리기에 앞서 오는 29일에는 10여 년에 걸쳐 보수와 단장을 마친 사사자 삼층석탑(국보 제35호)이 준공 화향식을 마치고 그 위용을 자랑하며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화엄사에서 산내 암자 연기암까지 양복 2.0km의 구간을 '화엄숲, 어머니의 길'로 지정해 명명식을 한

다. 어머니의 길로 명명하는 데는 사사자 삼층석탑이 지닌 효 사상을 바탕으로 구례라는 지명이 갖는 의미와도 그 뜻을 같이해 명명했다고 한다.

첫째 날 걷기대회는 화엄사 홈페이지와 구례군체육회,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포교사단, 화엄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한 희망자들이 우선순위로 참여한다. 화엄사를 출발-어머니의 길-연기암-급정암을 거쳐 화엄사 각황전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둘째 날 과불제에서는 조계종 어장인 인목스님을 초청해 범패의식을 구현한다. 이는 화엄제가 갖는 대표적 의미로 대화엄사가 지닌 화엄법계의 이치를 화엄사 과불을 모신 가운데 펼친다.

마지막 날에 열리는 음악제에서는 화엄사가 그동안 이어온 영성음악회의 명성을 기조로 클래식, 세미클래식, 재즈, 퓨전음악을 다채롭게 선보이며, 사흘간의 대미를 장식한다.

/전남취재본부=손석봉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광양소방, 5일시장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광양소방서가 추석 명절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광양5일시장을 찾아 화재 예방 안전컨설팅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현장 확인을 통해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자를 만나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했다.

최경영 광양소방서장은 "광양5일시

장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로 화재 시 대형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소방시설 관리와 대피 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소방서는 명절 기간에도 특별경계근무 및 신속 출동체계 확립 등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해 근무할 예정이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보성경찰,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 간담회

보성경찰서가 최근 대형교통사고 예방 등 우리 동네 교통안전 개선사업과 관련해 보성군정,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형교통사고 등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동네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대해 시설개선 및 지

원 등 협업 사항을 논의했다. 보성경찰서는 앞으로도 교통안전 개선사업 마을 선정과 대상 장소 현장점검 등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오미관 보성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보성군정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교통 사망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곡성 귀촌 윤은경씨, 아동센터에 전통한복 기부

곡성군이 죽곡면에 귀촌한 윤은경 씨가 최근 아동용 전통한복 100벌을 곡성군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은경 씨는 "한복이 언제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일상복이라는 인식이 퍼졌으면 좋겠다"며 "어릴 때부터 한복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한복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한복 대중화를 위해 한복문화 지역거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 한복사진 공모전, 전통한복 문화 체험, 전통놀이 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한복 문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한복패션쇼 퍼레이드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